

# "원하는 남자" 자판기서 고른다 대형가 주변 50여대 영업

남녀간의 만남은 우연한 인연만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운명적인 우연한 만남만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노총각, 노처녀 되기 십상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온갖 수단을 통해 노력하지 않으면 원하는 대상을 얻기 힘든 세상이다. 현대에 있어선 남녀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기업화된 결혼정보회사를 통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동호회 활동, 채팅 등을 통해 쉽게 이성과의 만남이 가능한 시대이다.



시대를 거슬러 1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이색 자판기가 있었다. '데이트 라인'이라는 미팅자판기로 동전을 넣으면 남성의 신상명세가 적힌 쪽지를 투출해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지금으로 보면 웃음이 절로 나는 자판기였지만 당시에는 획기적인 만남을 주선하는 자판기로 큰 화제를 모았었다. 아쉽게도 큰 시장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아날로그적 감성이 물씬 묻어나는 그 자판기가 그림계 느껴 지기도 한다. 자판기도 멋진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한 미팅자판기의 활약상을 당시 동아일보에 게재된 기사를 통해 살펴보자

최근 서울 시내에 5 백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교체대상 남성의 신상명세 등을 알아낼 수 있는 이른바 「미팅자판기」가 등장했다.

이 자판기는 종래 대학가에서 유행하던 「007」형(접전지점에서 암호를 통해 여성이 남자를 선택)과 「엘리베이터」형(여자가 승강기를 타면서 층마다 서있는 남자를 선택) 미팅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것으로 지난 4월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공중전화기모양을 한 이 자판기는 현재 명동, 종로, 강남 중심가 등 변화가와 이화여대, 숙명여대, 돈암동 등 대학가 주변에 50여대가 설치돼 있다.

이 자판기이용은 우선 여성과 교제를 원하는 남자가 입회원서에 자신의 성별, 나이, 본적, 직업, 특기를 적은 신상명세서를 자판기를 운영하는 「만남정보센터」에 보내면서 시작된다.

이때 남자들은 입회비 5천원에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횟수에 따라 1만원에서 2만원까지 가입비를 내야한다.

만남정보센터측은 온라인으로 가입비접수를 확인한 뒤 남성의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 곳곳에 설치된 자판기에 보급하고 여성들은 이 자판기에 5 백원을 넣고 원하는 연령층의 상

대방을 선택, 그와 관련된 정보를 얻게 된다. 출력정보가 마음에 들면 여성이 전화를 걸어 데이트가 이루어진다.

이 자판기를 이용해 본적이 있다는 김모양(22세)은「정보가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교체대상 남성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호기심에 이를 찾는 젊은 여성층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판기를 의장 특허출원한 「센터」측은 최근 한 달 동안 자판기 사용횟수가 6 백여 건에 이르고 이 자판기를 통해 10여 쌍이 결혼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의 박광섭씨(35)는 『결혼상담소를 이용할 경우 소 개료만도 40 만원이 넘고 있지만 자판기를 이용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교체대상과 범위를 넓힐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전국에 걸쳐 이 자판기를 2 천대까지 확대 보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이성간 만남이 자판기를 통해 즉흥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이성교제의 물인간화 상품화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동아일보. 1992년 6월 15일 보도>